

## 20대 여성의 체형별 신체만족도와 패션이미지 연구

### Body cathexis and fashion image of female collegians by somatotype

김양원 · 이미진

대전대학교 패션디자인 비즈니스학과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differences of the real somatotype and the ideal somato type and fashion image sought in female collegians by somatotype. In addition, WHR , CWR, and body cathexis was analysed. ANOVA 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x2 test was used as statistical analys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WHR of thin, regular, fat somatotype was 0.75, 0.76, and 0.83, respectively while CWR was 0.77 in thin, 0.81 in regular, 0.80 in fat somatotype. The respondents who considered themselves overweight recognized themselves fatter than real weight.
2. They were not satisfied with bust girth in thin, thigh part and calf part in regular people, and all part except foot length, hand length and sleeve length.
3. Clothing image sought by 45.5% female collegians was fashionable and raffine and that sought by 10.4% female collegians was elegant and graceful.
4. Among the body area, body parts that may have an effect on body image were body length in 13.1% of the respondents, waist girth in 10.7% of those thought, and hip girth in 10.0% of the respondents.

*Key Word : Body cathexis, fashion image, WHR , CWR.*

### 1. 서론

현대에는 여성의 외모가 자신감과 능력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외모의 구성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체형은 적절한 의복을 선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신체상(body image)은 개인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Cooper & Taylor, 1988), 자신의 외모와 신체 기능, 신체 상태에 대한 느낌이나 태도(Fisher, 1968)를 말하는데, 신체상은 신체적 매력과 관련이 깊고 의복 만족도와도 많은 관련이 있다.

같은 키와 몸무게라 하더라도 체형은 신체 각 부위의 크기와 생김새가 다르다. 그래서 허리와

영덩이 비율인 WHR(Waist to Hip Ratio)을 여성의 매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WHR 의 가장 이상적인 지수는 0.7 이라 하였다(Singh, D. 2002). 그러나 미의 기준은 시대, 인종과 문화,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0.6, 남미와 아프리카 일부에서는 0.8, 0.9 를 이상적인 WHR 지수라고 하였다(Dixson, 2007; Marlowe, 2001). 이상적인 WHR 을 위해 코르셋을 착용하거나, 영덩이 패드로 인체치수를 간단하게 크게 하거나 작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자신의 체형을 파악하여 신체만족도를 높이고 원하는 패션이미지를 연출하여 자아실현을 도울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에 거주하는 20 대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만족도를 알아보고, 체형을 WHR 과 CWR 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조사 대상자의 실제체형과 이상체형과의 차이를 파악하며 추구하는 패션이미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신 있고 이상적인 체형을 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전지역의 20 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 년 4 월 17 일, 18 일 이틀간이며 직접조사 및 인터넷 메일과 메시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150 부의 설문지 중 답변이 미미한 것을 제외한 101 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 자료는 SPSS/WIN 12 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 3. 연구 결과 및 고찰

###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나이는 평균 22.7 세이고, 키는 162.6cm, 몸무게 51.0kg 이었다.

신체지수의 판정기준은 이병순 등(1997)의 연구에 기초하여 분류하였는데, 자신을 뚱뚱한 체형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는 모든 체형분류법에서 보통체형으로 나타나, 자신을 실제보다 더 뚱뚱하게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체형별 신체 지수 (단위: Mean±S.D)

	마른체형	보통체형	뚱뚱한 체형
키(cm)	163.9±4.9	162.6±4.7	161.4±3.4
몸무게(kg)	46.5±4.2	51.3±5.1	56.5±8.1
Rohrer Index	105.5±5.3	119.5±11.2	134.8±16.6
Broca Index	80.9±3.9	91.3±8.1	102.5±12.8
BMI	17.3±0.8	19.4±1.7	21.7±2.8
WHR	0.75±0.09	0.76±0.09	0.83±0.14
CWR	0.77±0.05	0.81±0.06	0.80±0.04

$$\text{Rohrer Index} = 107 \cdot W/H^3$$

$$\text{Broca Index} = 102 \cdot W / \{ (0.9 \cdot (H - 100)) \}$$

$$\text{Body Mass Index} = W / (H/100)^2$$

$$\text{WHR} = \text{Waist} / \text{Hip Ratio}$$

$$\text{CWR} = \text{Waist} / \text{Chest Ratio}$$

WHR 은 뚱뚱한 체형이 다른 체형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허리가 잘록하지 않고 뚱뚱한 체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CWR(Chest to Waist Ratio)은 보통 체형이 가장 큰 값을 보였다. 즉 보통 체형이 다른 체형보다 가슴에서 허리까지의 굴곡이 완만한 것이다. WHR 과 CWR 로 인체상을 유추해 보면 보통 체형이라고 답한 사람은 삼각형 체형을, 뚱뚱한 체형이라고 답한 사람은 역삼각형 체형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말랐다고 답한 사람은 모래시계형 체형임을 알 수 있다.

### 3.2. 신체만족도

5 점 척도(1=매우불만, 5=매우만족)로 측정된 신체 만족도는 대부분의 신체 항목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넓적다리둘레와

장딴지둘레 및 엉덩이둘레 항목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박재경 등(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표 2] 체형별 신체 만족도

	마른체형	보통체형	뚱뚱한체형	합계	F
허리둘레	3.7±0.8	2.3±1.1	1.5±0.7	2.4±1.2	17.6 ***
엉덩이둘레	2.5±1.1	2.2±1.1	1.5±0.8	2.1±1.1	3.6 *
목길이	3.4±1.5	3.2±0.9	2.1±1.0	3.0±1.1	8.0 **
몸무게	3.9±1.2	3.3±0.9	1.9±0.9	3.2±1.1	18.4 ***
위팔둘레	3.9±1.2	2.4±1.0	1.4±0.7	2.5±1.2	23.4 ***
아래팔둘레	4.2±0.9	2.8±1.1	2.1±1.3	2.9±1.2	15.4 ***
손목둘레	3.9±1.1	3.5±1.2	2.9±1.5	3.5±1.2	3.1 *
넓적다리둘레	3.3±1.3	1.9±1.1	1.3±0.8	2.0±1.2	16.4 ***
장딴지둘레	3.4±1.4	2.0±1.1	1.5±1.1	2.1±1.2	12.8 ***
발목둘레	3.9±1.4	3.1±1.0	2.8±1.5	3.2±1.2	4.7 *
다리길이	3.2±1.6	2.5±1.2	1.9±1.4	2.5±1.3	3.8 *
몸통둘레	3.7±1.0	2.6±1.0	1.8±1.2	2.6±1.1	13.0 ***
몸무게	3.7±1.1	2.2±1.2	1.3±1.0	2.3±1.3	17.4 ***

\*p≤.05, \*\*p≤.01, \*\*\*p≤.001

마른 체형에서만 가슴둘레가 가장 불만족 부위로 작용하였다. 넓적다리둘레는 보통 체형과 뚱뚱한 체형이 가장 불만족하다고 하였는데, 마른 체형에는 적용되지 않아 체형간 불만족스러운 부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3. 이상체형

키,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몸무게 항목에서 자신의 실제체형과 이상체형 간에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키와 가슴둘레는 실제치수보다 큰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몸무게에서는 작은 치수를 원하였다. 이는 정재은 등(1999)과 최미성(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WHR 과 CWR 의 값을 보면, 실체는 삼각형 체형이지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은 모래시계형 체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실제치수와 이상치수의 비교 (단위: Mean±S.D)

신체부위	이상치수	실제치수	t-값
키	166.8±3.1	162.6±4.6	9.8***
가슴둘레	86.8±5.3	84.0±7.1	3.2***
허리둘레	63.0±4.5	66.1±8.3	-3.2***
엉덩이둘레	84.3±9.1	87.2±9.4	-2.5*
몸무게	48.9±3.6	51.0±6.1	-3.6***
Rohrer Index	105.9±7.3	118.7±13.8	-8.7***
Broca Index	81.7±5.5	90.7±10.2	-8.2***
BMI	17.6±1.2	19.3±2.1	-7.4***
WHR	0.76±0.10	0.78±0.11	-1.3
CWR	0.73±0.05	0.80±0.06	-8.5***

\*p≤.05, \*\*p≤.01, \*\*\*p≤.001

### 3.4. 추구 이미지

외출복 착용 시 추구하는 의복이미지를 선행연구(노영, 박재옥 2008; 이경림, 박숙현 2008)를 바탕으로 크게 4 가지 이미지로 분류하였다.

[표 4] 외출복 착용 시 추구하는 의복이미지

	마른체형	보통체형	뚱뚱한체형	합계(%)
패셔너블하고 세련된 이미지	44.2%	44.4%	51.1%	45.5%
우아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	11.6%	10.1%	8.9%	10.1%
편안하고 활동적인 이미지	25.6%	29.3%	26.7%	28.3%
귀엽고 깜찍한 이미지	18.6%	16.2%	13.3%	16.1%

추구하는 의복이미지는 모든 체형에서 패셔너블하고 세련된 이미지가 가장 많았고, 우아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는 가장 낮았다. 20 대 초반의 여성은 유행에 민감하고 활동성과 경제성을 고려하는 시기이므로

패셔너블하고 세련된 이미지, 편안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4. 결론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신체만족도를 알아보고, 여대생의 WHR, CWR 을 분석하였으며, 실제체형과 이상체형과의 차이를 파악하며 추구하는 패션이미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WHR 은 마른 체형과 보통 체형의 경우 각각 0.75, 0.76 이며, 뚱뚱한 체형은 0.83 이었다. CWR 은 마른 체형은 0.77, 보통체형은 0.81, 뚱뚱한 체형은 0.80 이었다.

2. 마른 체형의 가장 불만족하는 신체부위는 가슴둘레이며, 보통 체형은 넓적다리과 장딴지, 그리고 뚱뚱한 체형은 발크기, 손크기, 팔길이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불만족하다고 하였다.

3. 키와 가슴둘레는 자신의 실제치수보다 큰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몸무게에서는 작은 값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4. 추구하는 의복이미지는 체형에 관계없이 '패셔너블하고 세련된 이미지' 가 가장 많았고, '우아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 는 가장 낮았다.

본 연구는 대전지역의 20 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용되는 신체사이즈는 설문조사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타 지역이나 다른 연령에 적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박재경, 남윤자, 최경미 (2004). 한국과 일본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 및

신체만족도에 관한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v.28, no.6, 758-766.

[2] 이경림, 박숙현 (2008). 의복의 조형요소에 따른 캐주얼이미지 분류. 한국의류학회지, 1171~1781.

[3] 이병순, 심영자, 이승주 (1997). 체형분류를 위한 BMI, Broca, Rohrer 방법의 도표 분석. 한국영양학회지, v.30, no.2, 195-200.

[4] 정재은, 남윤자 (1999). 20 대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이상형에 관한 연구 - 1992 년도와 1997 년도의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v.23, no.1, 159-169.

[5] 최미성 (2008). 실제체형과 이상체형에 대한 남녀 대학생들의 인식과 선호체형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32, no.3, 443-453.

[6] Cooper, P.J. & Taylor, M.J.(1988). Body image disturbance in bulimia nervosa.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3, 32-36

[7] Dixon, B.J.; Dixon A.F., Li B., Anderson M.J. (2007). "Studies of human physique and sexual attractiveness: sexual preferences of men and women in China". Am J Hum Biol 19 (1): 88-95.

[8] Fisher, S. & Cleveland, S.E.(1968). Body image and personality. New York: Dover

[9] Marlowe, F.; Wetsman, A. (2001). "Preferred waist-to-hip ratio and ecolog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481-489.

[10] Singh, D. (2002). "Female Mate Value at a Glance: Relationship of Waist-to-Hip Ratio to Health, Fecundity, and Attractiveness". Neuroendocrinology Letters 23, 81-91.